

## “쉬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삶”

- 愚齋 安承周 선생님을 추모하며 -

윤 용 혁\*

1998년 6월 23일 새벽, 愚齋 安承周 선생님은 세상을 떠셨다. 향년 62세. 실제로는 63세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64세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늘려 64세라 하더라도, 그를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다.

### 연기군 대박리에서 출생하여

내가 선생님을 뵈게된 것은 1970년 공주사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해서의 일이었다. 4년 간의 가르침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1978년부터 모교의 강사로 출강하기 시작했고, 1980년 전임이 되어 같은 과에서 봉직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1970년부터 작고하신 199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나는 선생님 주변에 꽤 가까이 있었던 셈이고, 학문적 가르침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한마디로 선생님의 생애를 정리하라면, 그것은 “쉬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삶”이었다.

흔히 공주 토박이인 것처럼 기억되는 선생님은, 1935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 출생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 대박리 마을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깡촌’이라는 말이 실감된다. 금강의 물줄기를 가까이 끼고 있는 것은 공주와 마찬가지로, 풍수가 좋아서인지 고위 관직자나 유명한 학자가 다수 배출된 지역이라 한다. 마을 동구에 탄산약수가湧출하는 샘은 이 마을의 명물이기도 하다.

선생님의 공주와의 인연은 공주고등학교에의 진학으로부터였다. 대학(고려대 사학과)을 마친 후, 교직을 공주에서 시작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공주토박이’로 불리더라도 서운(?)할 바 없는 처지이다.

교직에의 길은 공주 시내 사립중학교의 강사로부터 시작 되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최선을 다해 전력하여 일을 이루는 집념이 그 장기였다. 그러므로 어느 직장에서건 곧 중심이 되었다.

---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사립학교 교사 재직시에는 거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여 학생의 기를 제압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같은 열심 때문에 곧 공주사대 부속중고교에 ‘스카웃’ 되었다.

역사교사로서의 공주생활은 그로 하여금 보다 높은 단계를 바라보게 하였다. 당시 공주에는 풍부한 백제문화 유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유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공주를 기반으로 이를 연구하는 작업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절실한 요구였다. 아직 ‘고고학’이란 학문이 일반화되기 전의 일이었다. 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백제문화 연구에 평생 진력할 것을 결심한 것은 선생님의 실질적이며 정확성 있는 판단력을 잘 보여준다. 석사학위 논문은 지금의 공주대 캠퍼스 바로 곁에 위치한 백제 시목동고분에 대한 연구였다. 이 첫걸음이 그를 백제 고분연구에 진력케하는 백제 고분박사로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1968년 선생님은 공주사대 사회교육과의 전임으로 채용되었다.

## 백제의 산야를 누비다

공주사대 교수로서의 주어진 일은 학생들의 지도 이외에 역사도시 공주의 유적과 백제문화 연구를 전담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내에 백제문화연구소와 박물관 설치에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공주대의 백제문화연구소는 국내의 여러 백제관련 연구소중 최초로 설립된 연구기관이었다.

초기 연구는 물론 공주지방에 산재한 백제무덤이었지만, 반드시 공주에 국한되지 않고 멀리 서산에까지 관심을 보여 새로운 자료를 정리, 학계에 보고하였다. 그의 학문적 여정에 힘을 보탠 것은 백제 와당을 전문하게 된 공주교육대학의 朴容煥교수, 그리고 공주박물관장이셨던 牛步 金永培 선생이었다. 이들은 공주의 산야를 누비며 새로운 유적의 발견과 조사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1969년 이후 2차에 걸친 서혈사지 발굴이 가능하였다.

공주 서혈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초기 거점으로서, 그리고 석굴사원으로서 주목되는 점이 많았을뿐 아니라 통일신라기의 불상과 함께 백제기 와당의 발견으로 그 初創의 역사가 주목되었던 터였다. 당시로서는 아직 발굴작업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고 따라서 발굴예산을 얻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예산을 지원받아 수년에 걸쳐 절터를 발굴하게 되면서, 공주는 비로소 역사 유적의 발굴이라는 새로운 기원을 이룬다. 愚齋 선생님의 고고학적 학문 능력도 이에 의하여 단단히 다져지게 되었다.

1971년 7월 무령왕릉의 발견은 愚齋 安承周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 무령왕릉의 발굴 작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三佛 선생을 비롯한 중앙의 학자들과 두터운 교분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백제 고고학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학문적 안목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던 것 같다. 愚齋 선생님은 백제문화에 관심을 갖는 일본의 학자들과도

깊은 교류를 맺었다. 國士館大學의 大川 淸 교수, 南山大學의 伊藤 교수, 九州大學의 西谷 正 교수 등이 그렇다. 백제 고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백제 고분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탄탄히 닦아 나갔다. 그의 조사연구 결과는 주로 공주시대 백제 문화연구소의 기관지인 『백제문화』를 통하여 발표되었고, 그중의 일부는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의 조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중의 하나는 1974년 부여 초촌면에서의 청동기시대 석곽묘 조사였다. 수습조사의 형태가 되었던 석곽묘에서는 요령식동검이 부장되어 있어, 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이후의 청동기 연구에 큰 자극을 주었다.

### 백제무덤 발굴로 당한 곤경

학문적 업적을 깊이해 가던 우재선생에게는 이로 인한 시련도 없지 않았다. 백제고분 연구의 전문가는 바로 이 백제고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1979년 여름 공주시 웅진동고분 발굴의 일이다. 문제의 웅진동고분 지역은 무령왕릉에서 남측으로 약간 떨어진 한산소 마을이었다. 당시 이 지역은 지폐를 찍는 조폐공사의 공장 부지로 확정되어 공사가 시작된 곳이었다. 공장과 같은 근대 산업시설의 결여가 지역발전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던 주민들은 조폐공사의 공장 부지로 이곳이 확정되자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공식을 올리기 위한 진입로 공사중에 백제 무덤이 불도저에 걸려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이 부지가 백제 무덤의 밀집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는 현지의 학술조사를 마치고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지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어 나갔다. 그런데 구릉을 깎아내는 부지 정지 공사중 백제 무덤은 계속 도저에 걸려 나왔고, 그 무덤은 무령왕릉 옆의 석실분과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었다.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유적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1979년 여름 방학이 시작하는 7월 중순부터 조사 작업은 개시되었다. 예상대로 웅진도읍기 조영된 궁궐상 형태의 횡혈 석실분이 집중 확인되었는데, 이같은 대량의 백제고분 조사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공장부지로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어떤 중앙의 일간지는 이 문제를 집중보도하며 사설까지 동원하여 공장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정부는 돌연 공장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의 유신시대 말기로서 사회 정세가 불안한 상태였는데, 매스컴에서의 연이은 문제제기에 박대통령이 “왜, 거, 시끄럽게 그래!” 하고 짜증을 부렸다는 후문이 있다. 조사 작업이 시작된 딱 한 달만의 일이었는데, 이렇게되자 공주시내에서는 발굴 때문에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고 낭패하였다는 여론이 끓었다. 정부의 공장 건설 백지화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데

모대가 되어 발굴 책임자였던 선생님의 자택으로 몰려들어 투석 농성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후유증은 꽤 심각하였으며 두고두고 무거운 말거리로 남게되었다.

### 백제문화권 개발을 선도하고

1970년대 말 이후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에의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1978년 정부는 공주 부여 등 지역의 문화유적 현황을 조사하도록하고, 이를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하여 공주지방 유적의 전체적 현황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논의되어지는 백제문화권 개발에의 계획 심의 등에 주요 인사로 선생님은 줄곧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유적에 관한 문제 뿐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제시를 하였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에는 주요 유적에 대한 발굴작업이 추진되었다. 그중 가장 집중적 장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던 곳이 공산성 유적이다. 성안의 유적들을 매년 일정 부분 발굴 하였으며 성안 유적에 대한 조사 작업은 선생의 발굴 작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공주 공산성의 성곽 축조 방식, 추정 백제 왕궁터와 통일신라시기의 각종 대형 건물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땅속에 묻혀 있던 만하루 연못을 드러내 세상에 빛을 보게하기도 하였다.

1980년 제4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공주사대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선생님께서 실무를 맡아 일을 치른 작업이었다. 공주와 공주사대의 당시 사정이 이같은 전국규모 학술대회를 치를만한 시설이 미비하여 여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 1989년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1991년에는 한국고대학회장에 피선 되었다. 이같은 경력은 선생님의 꾸준한 학문 정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 공주대학 학장, 공주대학교 총장

1968년 대학의 전임이 된 이래 선생님은 박물관장 혹은 백제문화연구소장 이외의 다른 보직 일을 맡지 않았다. 1980년대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는 한때 교무처장직을 종용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교묘히(?) 회피하였다. 그리고 20여 년을 오로지 백제문화의 조사 연구 업무에 전력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이같은 업무에 대하여 그 자신이 신념과 더불어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1987년에 결성된 초대 교수협의회 의장직을 맡는다. 당시 민주화의 바람으로 각 대학에 교수협의회가 결성되고 있었지만, 그 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불

이익을 우려하여 꺼리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였다. 2년 임기의 의장직을 맡는 동안 그는 공주사대의 운영 전반과 향후 대학의 진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고민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는 대학과 사회에 민주화 열기가 팽배하였던 시기였고, 동시에 전환적 성격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학의 행정 책임자는 종래의 임명체로부터 교수들의 직선으로 바뀌고 있었고, 사범대학의 경우는 교원 임용방식이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시기였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심각하던 시기였다.

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험은 그를 대학 행정의 책임자로 내몰았다. 1990년 1월에 실시된 학장 선거에서 그는 최다득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일반대학으로의 개편과도기인 '공주대학'의 학장직을 맡게된다. 그 1년만에 공주대학은 종합대학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총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는데,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 공주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총장 재임중 공과대학과 일반대학원의 설치, 제2캠퍼스 조성, 예산농전과의 대학 통합, 학과 증설 등, 굵직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교수들과의 인화도 원만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발굴작업의 현장에서의 실무적 일은 손을 떼었지만, 정부의 문화재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등 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였다. 공무로 바쁜 와중에 발굴현장을 찾을 경우, 친정에라도 온 것처럼, 현장일에 대한 향수를 자주 피력하시곤 하였다.

## 충남 발전과 발굴에의 집념

학장 1년, 총장 4년의 임기를 마친 그를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발전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기구를 발족시켰으며, 그 책임자에는 학문적 능력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지역인사가 요청되었다. 이점에서 우재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이의없이 적격자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선생님은 교수직을 가지면서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한다. 초창기의 연구원은 그의 혼신적 노력에 의하여 튼튼한 기반을 닦고 지역발전의 핵심적 동체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원장 임기는 3년이었다. 선생님의 나이도 이미 회갑을 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패기로웠던 성격도 이제는 너그로움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대학에서의 정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선생님은 정년을 전후한 생애의 마지막 활동을, 채 완결하지 못한 고고학적 작업에 헌신하고자하는 뜻을 세우게 된다. 발굴과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 전문기관의 설립이 그것이다. 국토 개발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별 전문 조사기관의 설립이 요청되었고, 선생은 자신이 뼈를 묻게될 충남지역에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향후의 시대적 요구를 대비케 하려고 하였다. 이 일은 고고학적 학문 능력과 행정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일이었다. 이렇게하여 1997년에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발족하게 된다. 1998년 6월 30일에는 충남발전연구원장의 3년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발굴 현장에서 그 삶을 종신하고 학문을 정리하여 후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이어주려는 계획이었다.

이제는, 편히 쉬시옵소서

1998년 6월 23일 새벽, 선생님께서는 투병중 돌연히 서거하셨다. 병세가 아직 크게 호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일단 수술의 경과가 성공적이라는 전언에 안도하고 있었던 터라, 이 소식은 청천의 벽력같은 것이었다. 6월 25일의 장례식에는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 것만 같았다.

이제 선생님은 가시고, 그 공백을 선생님의 후진들이 메꾸어야할 계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더욱 크게만 느껴진다.

선생님은 평시 밤낮으로 일 속에 파묻혀, 거의 쉬실 겨를이 없으셨다. 그러나,

선생님,

이제는 편히 쉬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걱정이 없는 저 세상에서.



<사진 1> 1980년 공산성 유적 발굴 현장에서



<사진 2> 1995년 천안 백석동 유적 현장 방문